영화 My Sister’s Keeper의 주인공 ‘안나’는 언니 ‘케이트’의 백혈병 치료를 목적으로 태어난 맞춤형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니를 위해 희생했다. 악화되는 언니의 건강으로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된 안나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고소한다.

여기서 맞춤형 아기란 유전질환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선별에 의해 정상적인 배아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로, 시험관 수정배아 상태에서 환자의 유전자와 줄기세포 조직이 똑같은 상태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치병 치료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My Sister’s Keeper에서 ‘케이트’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형 아기인 ‘안나’를 태어나게 한 것, 즉 맞춤형 아기를 통해 환자의 치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필자는 어떠한 수단으로 맞춤형 아기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맞춤형 아기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가? 첫째,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것이다. 영화에서 ‘안나’는 ‘케이트’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병을 치료할 목적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만약 영화의 결말과는 달리 ‘케이트’의 병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 ‘안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맞춤형 아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므로 존재 가치가 불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맞춤형 아기는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헌법에 자기결정권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미국에도 버지니아주 권리선언 제1조에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며, 생명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돼있다. 하지만 맞춤형 아기는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도록 태어나게 한 것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셋째,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 인간 배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려면 성공률이 100%에 근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잘못된 기술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할 비율이 높다. 만약 돌연변이로 인해 목적에 맞지 않는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아기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것과 같이 아기를 유기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맞춤형 아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기를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것보다, 불치병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죽게 방치하는 것이 더 비인간적이다.’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만약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라고 묻고 싶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진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맞춤형 아기는 존재해선 안 되며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맞춤형 아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술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배아 연구로 인해 많은 생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난치병을 고칠 수 있으므로 발전해야만 하는 기술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생명과학자들의 실수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또 불치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는 맞춤형 아기보다는 다른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